문화가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지난주 목요일 밤 8시 넘어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벨문학상 탄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문학성은 뛰어난데, 번역 작업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나는 20대에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의 작품을 읽었다. 한승원의 불교적 세계관을 염두에 두었고, 한강은 한승원의 딸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고등학교 때, 인도의 타고르(1861~1941)가 쓴 〈기탄잘리〉를 읽으면서 불교적 영감을 얻었다. 그가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찬탄한 점과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의미를 부여한 탓인지 그를 매우 좋아했고, 출가하고 나서도 〈기탄잘리〉를 종종 읽었다.

책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에게 영혼의 진리를 일깨워준 작가는 러시아의 톨스토이(1828~1910)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인물의 신분과 계급을 넘어 인간 본질의 고귀함, 인물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서 불교적 휴머니즘을 배웠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도를 다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 한 사람과 바꾸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셰익스피어의 유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산물과 정신적 보물을 맞바꿀 수 없다는 영국인의 사유이다. 아니 이 점은 어느 누구에게나 보

한강 소설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다시 한번 '문화가 주는 힘' 체감
한국적 불교사상 깃든 불교 돼야

편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정신 영역의 산물인 문화는 감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

그럼 방향을 바꿔 중국으로 가보자. 중국이 대국인만큼 역사도 장구하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통합했다가 분열되고, 분열되었다가 통합되는 등 끊임없이 다국적인 면모를 반복했다. 이는 중국이 고대로부터 한족과 이민족(소수민족)의 대결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치욕스런 역사가 적지 않다.

당나라 때만해도 중국은 토번(현 티베트)에 공물을 바쳐야 했고, 태종(재위 626~649)은 문성공주를 송첸캄포에게 시집보냈다. 북송 · 남송은 금나라의 간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어서 원나라(몽골족)의 지배를 100년, 청나라의 지배는 300여년이 넘는다.

하여튼 치욕스런 역사가 적지 않은 중국이 어찌해서 고대 이래로 근대까지 동아시아에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을까? 그것은 한자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과 이 한자에서 유교(유학)와 불교 경전이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우, 역경을 통해 종파가 발전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 또한 마찬가지다.

필자가 하고픈 이야기는 한 마디다. 역사에서 본대로 문화가 뛰어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 역사 또한 물질적 산물보다는 정신적인 산물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제2의 한강'과 같은 인물이 줄지어 배출될 것이라고 본다. 불교 또한 문화의 한 일부분이다. 한국적인 불교사상이 깃든 불교로 발전되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불교일 때, 전 세계적인 불교로 발돋음된다.

잡종 사회와 연기법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생물계에서 '잡종 강세'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잡종 강세의 법칙을 원용하고 이용하는 범위와 기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농업 작물, 가축의 품종 개량 등 이종 간의 교배를 통해 잡종 강세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잡종화는 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사회의 역사는 잡종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잡종화란 이질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어떤 요소를 창출해 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잡종화를 이루기가 만만치 않다. 인간과 인간 사회의 잡종화 과정에서 수많은 격랑의 파고를 겪어야 한다. 잡종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지혜 그리고 용기를 요구한다. 지구촌의 인간 사회에는 잡종화를 막는 많은 장애가 있다. 종족과 부족 의식, 맹목적 신앙체계, 폐쇄적 이념, 정치인의 탐욕 등이 대표이다. 이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파시즘, 전체주의, 정교일치의 신정체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일찍이 칼 포퍼(Karl Popper)가 우려했던 〈열린 사회의 적(Open Society and Its Enemies)〉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범람하고 있다.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만큼.

'잡종화 사회'는 열린 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열

잡종화, 이질적 요소의 융섭 과정
맹목적 신앙, 인간의 탐욕이 막아
잡종 사회 첫 구현자는 '원효스님'

린 사회의 적들은 '순혈주의' 또는 '순종(純種)주의'를 내세우며 잡종화를 비난하고 비하한다. 이러한 순혈주의, 순종주의는 매우 선동적인 용어로 장식되기 때문에 대중 동원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많이 정치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충족한다. 그래서 잡종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잡종화 사회 구현은 바로 연기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연기론은 모든 존재는 상호의 존하여 생성되고 존재하고 멸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구조는 이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유 틀은 우리의 뇌를 편안하게 해 준다.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선과 악 등 이분법적 사유 틀이 우리의 혼란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유 틀은 '구분심'에서 출발한다. 잡종화 사회의 구현은 구분심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잡종 사회 구현의 첫 선각자로 신라의 원효 스님을 꼽고 싶다. 원효 스님의 화쟁 회통(和諍 會通)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화쟁 회통 논리는 서로 다른 점을 분명히 인식한 후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소통을 끌어낸다. 즉 다른 점과 같은 점의 동시적 긍정을 통해서 소통을 끌어낸다. 이러한 회통적 소통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사유 틀에 접근하는 것이다. 바로 중도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잡종 사회로 가는 제일 중요한 연료이다. 잡종 사회 구현의 최종 단계는 '자비 공동체' 구현이다. 잡종화는 거대 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의 양식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우선 나부터 '잡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社 說

다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하여 1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해 왔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개설하고,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와 불교계 최초 인터넷 언론 '붓다뉴스'를 구축하며 불교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세간에서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고 부른다. 목어(木魚)에서 유래한 목탁은 불가(佛家)의 법도와 정신을 상징하는 법구이자 의식구다. 불가의 모든 법요식은 목탁소리를 따라 진행된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목탁과 목어는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성성적적하게 깨어있으라는 경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론에게 '목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불교언론에게 깨어있음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다. 시대 언어를 통해 불교를 전하고, 불법(佛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세계 속으로 한국불교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근간에는 '전법'이 있다. 서른 살 현대불교신문은 사시이자 창간 정신인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독자 제호에게 약속드린다.

이제는 'K-불교'를 세계에 전하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이렇게 썼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과도 맞닿는 저 일구(一句)는 광복 80년을 앞둔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듯 하다. 한국의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영화, 가요, 음식, 웹툰으로 확장되며 전 세계인에게 'K-문화 신드롬'을 가져왔다. 지난 10월 10일(현지 시각)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이제는 한국문학도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계 역시 세계에 한국불교 문화와 수행, 사상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열반 20주기를 맞은 숭산 스님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전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간화선에 뿌리를 둔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0월 8~15일 미국을 방문했다. 진우 스님은 예일대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선명상 강연을 하고 함께 실참을 하기도 했다. '무(無)'자 화두로 3분 간 함께 한 선명상 실참에 현지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K-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지금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적기(適期)이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함께 원력을 모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창간 30 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707호 전화 : 02-725-4277
www.lotusworld.or.kr